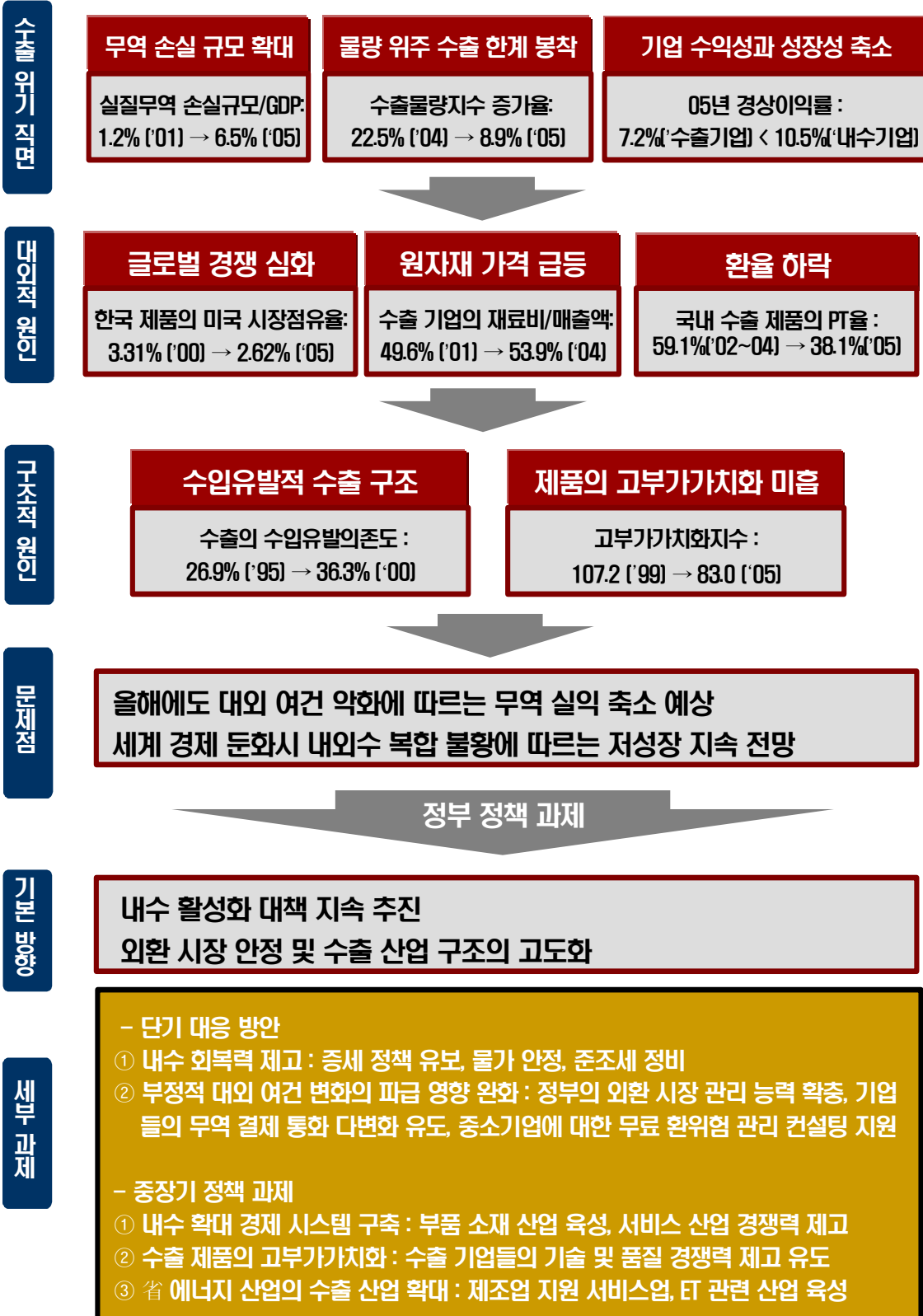


< 위기에 봉착한 수출 산업 >



□ 위기에 봉착한 수출 산업

1.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으로써의 수출 산업

○ 2003년 이후 3년여 동안 내수 침체에 따르는 저성장으로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되었으나, 수출 호황이 지속되어 성장 및 고용 부진 현상을 상당 부분 완화시킴

- 수출 경기 호황 지속 : 2003년 이후 중국 및 미국 경제의 호황이 지속되어 수출 증가율이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함
 - 수출 규모는 2001년에 약 1,504억 달러에서, 4년만인 2005년에 약 90%가 급증한 2,844억 달러를 기록함
- 경제 성장의 원동력 : 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성장 기여율이 크게 높아짐
 - 수출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2001년 -29.0%에서 2003~2005년 연평균 약 170%로 급증함
- 약 600만명의 고용 창출 : 이에 따라 수출 부문의 고용 창출 규모는 2001년 369만 여명에서 2005년에 575만 여명으로 늘어남

< 수출의 경제적 효과 >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 (억 달러, FOB)	1,504.4	1,624.7	1,938.2	2,538.4	2,844.2
수출 증가율 (%)	-12.7	8.0	19.3	31.0	12.0
수출/GDP (%)	31.2	29.7	31.9	37.3	35.1
수출의 성장기여율 (%)	-29.0	72.7	204.0	192.3	115.0
수출의 고용 창출 (만명)	369.2	378.7	431.7	538.9	575.0

자료 : 산업자원부, 한국은행.

주 : 1) 2005년 명목 GDP는 자체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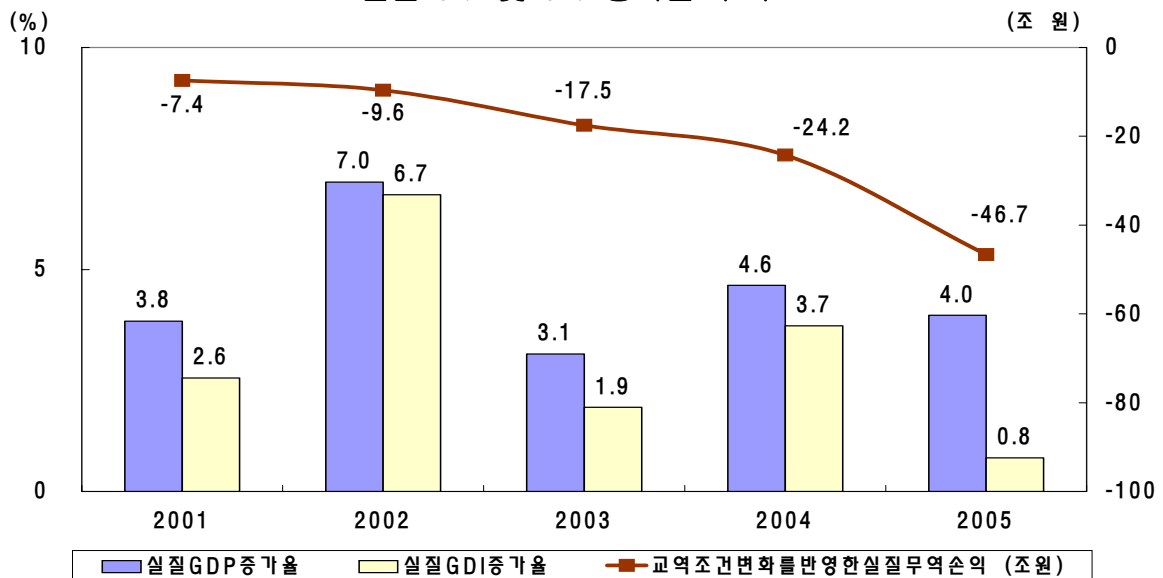
2) 수출의 취업 창출 효과는 2000년 산업연관표 상의 취업유발계수인 10억 원당 15.7명을 이용하여 추정함

3) 취업유발계수란 최종 수요 10억 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함.

2. 수출 실익의 축소

- 그러나 국내 수출은 무역 손실 규모 확대로 국내 실질 구매력 저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2005년 이후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수출 기업의 성과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남
- (무역 손실 규모 확대) 외환위기 직후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어 경제 성장을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및 기업의 실질 구매력을 크게 높이지 못함
- 실질 소득 정체 : 외형상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흑자로 수출의 성장 기여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 손실을 감안할 경우 실질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
 - 교역조건 변화를 고려한 실질 무역 손실 규모는 2001년 7.4조 원(실질 GDP의 1.2%)에서, 2005년에 46.7조 원(6.5%)로 급증함
 - 이에 따라 2005년 GDP증가율과 GDI증가율의 차이는 3.2%p로 크게 확대

< 실질 GDP 및 GDI 증가율 추이 >



< 국내총생산(GDI)의 개념 >

- 실질 국내총소득(real Gross Domestic Income) :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
 - 실질GDI (국내총소득) = 실질GDP (국내총생산)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 상대가격 변화에 따르는 구매력의 변동분
- ※ GNI (국민총소득) = GDI (국내총소득)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물량 위주 수출의 한계 봉착) 2005년 이후 순상품교역조건 악화가 지속 되는 가운데, 수출물량지수 증가율마저 둔화되어 소득교역조건 개선세가 급감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현상이 나타남

- 순상품교역조건 악화 지속 : 외환위기 이후 전 세계적 초과 공급, 고유가 시대로의 진입 등으로 수입단가지수 증가율이 수출단가지수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감소세를 지속함
- 소득교역조건 개선세 급감 : 2004년까지 순상품교역조건 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이 크게 확대되어 소득교역조건지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2005년에 들어 수출 물량이 정체됨에 따라 1.1% 증가에 그침
- 무역수지 흑자마저 축소 : 이러한 영향으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04년에 293억 달러에서 2005년에 232억 달러로 감소함
 - 특히 2006년 1~2월에 10.4억 달러로 전년동기의 50.1억 달러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함

< 교역조건 의미 >

① 순상품교역조건 지수 : 1단위 수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나타내며, 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100이며, 일반적으로 교역조건이라 하면 순상품교역조건을 의미

② 소득교역조건 지수 : 총수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며, 순상품교역조건지수×수출물량지수÷100 임

< 교역조건 및 무역수지 추이 >

	2002	2003	2004	2005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증가율 (%)	-0.5	-6.3	-4.2	-7.2
수출단가지수 증가율 (%)	-4.4	2.4	7.5	1.6
수입단가지수 증가율 (%)	-3.8	9.3	12.2	9.4
소득교역조건지수 증가율 (%)	12.7	9.5	17.4	1.1
수출물량지수 증가율 (%)	13.3	16.9	22.5	8.9
무역수지 (억 달러)	103	150	293	232

자료 : 한국은행, 산업자원부.

- (수출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축소) 2004년까지 수출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모두 내수 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5년에 들어 내수 기업보다 못한 경영 성과를 나타냄
 - 수출 기업의 이익 감소 : 2002~2004년의 기간에서 수출 기업의 경상이익률이 내수 기업의 이익률보다 높았으나, 2005년에 들어 내수 기업의 이익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함
 - 2004년 수출 기업의 경상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9.3%로 내수 기업의 6.5%보다 2.8%p 높은 수준이었음
 - 그러나 2005년 1/4~3/4분기에는 내수 기업보다 오히려 3.3%p 하락함
 - 수출 기업의 매출 증가세 둔화 : 수출 기업의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성장성마저 급격히 둔화되는 조짐을 나타냄
 - 2004년 수출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9.8%로 내수 기업에 비해 5.0%p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반면 2005년 1/4~3/4분기에 들어 수출 기업의 매출증가율은 0.5%에 그쳐 내수 기업의 8.8%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상장 · 등록 법인의 수익성 및 성장성 지표 추이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수익성	매출액 경상이익률	제조업	4.7	4.7	7.8	8.6
		수출기업	5.0	4.9	9.3	7.2
		내수기업	4.6	4.6	6.5	10.5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제조업	8.3	6.1	17.1	3.8
		수출기업	8.1	8.6	19.8	0.5
		내수기업	8.4	4.3	14.8	8.8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1) 수출 기업은 매출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의미함

2)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경상이익률/매출액 임

3) 2005년은 1/4~3/4분기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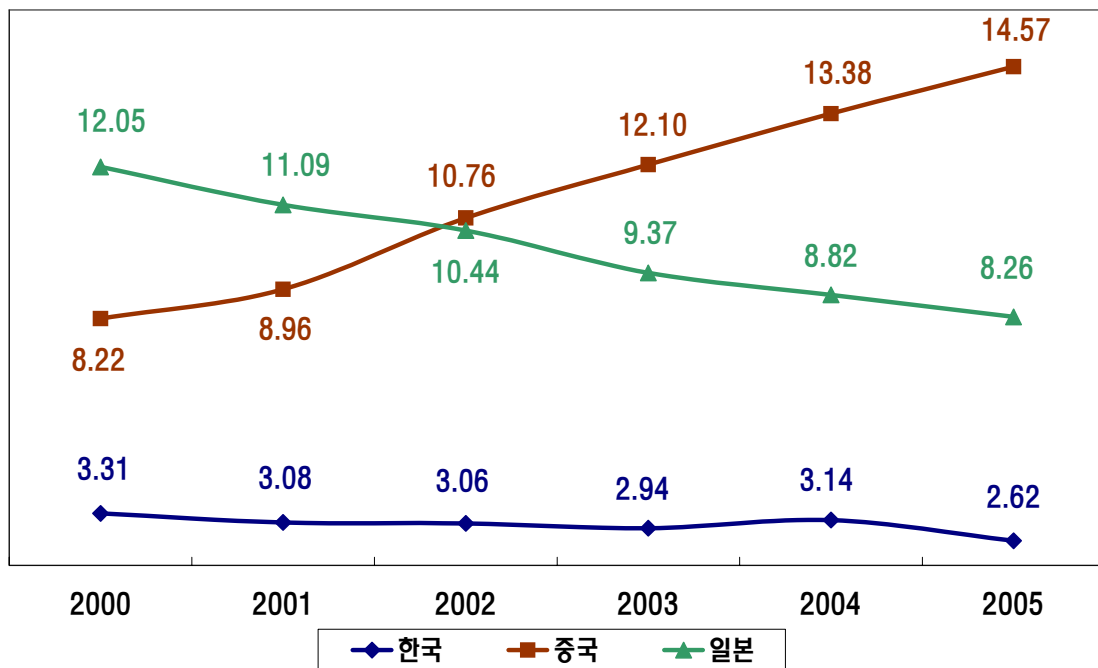
3. 수출 산업 위기의 원인

(1) 대외 여건 변화

-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하락 등의 수출 단가 인상 요인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고 내부화되어 수출 채산성이 악화됨
- (글로벌 경쟁 심화) 중국 등 신흥 개도국들이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에 편입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음
 - 중국産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00년에 9.22%에서 2005년에 14.57%로 급증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3.31%에서 2.62%로 낮아짐
 -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절대적인 규모면에서는 한국의 약 3배 이상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 시장에서의 한중일 제품 점유율 추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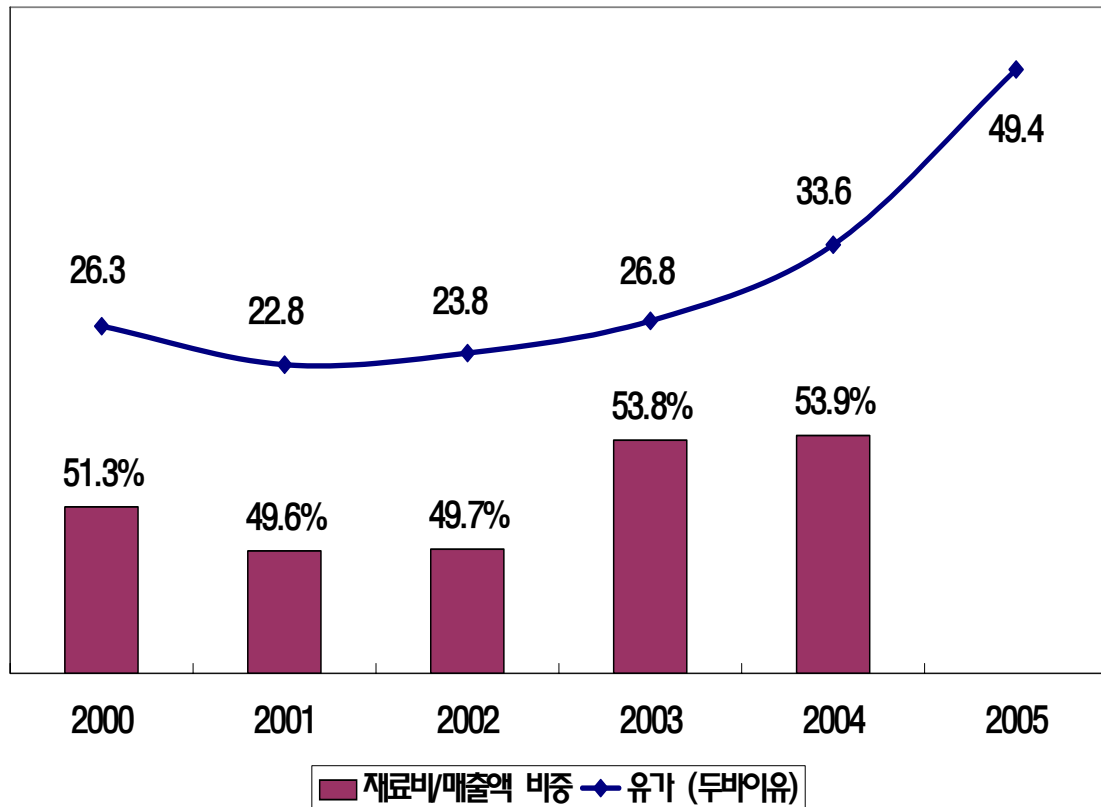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원자재 가격 급등)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출 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원료비 비중이 급증함

- **고유가** : 90년대 배럴당 10달러대에서 유지되었던 두바이유 유가는 2000년 이후 20달러대로 상승하였으며,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33.6달러 (전년대비 25.4% 상승) 및 49.4달러 (전년대비 47.0% 상승)로 급증함
- **재료비 비중 상승** : 국제 유가가 20달러대 초반을 기록할 때인 2001년과 2002년에 수출 제조업의 재료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대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이후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53%대에 달함

< 국제 유가 및 수출 제조업의 재료비/매출액 비중 추이 >

(유가, 달러/배럴)



자료 :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주 : 국제유가는 일일終價에 대한 연평균 가격이며, 재료비/매출액 비중은 수출제조업 기준.

○ (환율 하락) 2005년에 들어 특히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현지 수출 가격에 원화 가치 절상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임

- 원화 가치 절상 : 2002년 이후 원화 가치 절상이 지속되어, 수출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됨

· 특히 2005년 들어서의 원화 절상률은 11.7%로 2002~2004년 연평균 4.1%의 약 3배에 달함(2002년 3.2%, 2003년 4.9%, 2004년 4.2%)

- 현지 수출 가격에 반영 미흡 : 수출 기업들의 PTM (Pricing To Market, 시장 지향적 가격 설정) 전략이 지속되어, 환율 변동분을 수출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여 2005년중 수출 가격에 대한 환율전가율은 38.1%에 불과

· 2005년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에 62.3%, 2/4분기에 43.0%, 3/4분기에 30.0%로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4/4분기에는 원화 가치 절상률이 5.3%에 달하였으나 오히려 수출 물가는 1.0% 하락하여 PT율은 -18.7%를 기록함

< PTM (Pricing To Market, 시장 지향 가격 형성) >

- 통상 소규모 개방 경제의 수출 기업들의 결제 통화는 달러화 등 대규모 개방 경제의 기축 통화(anchor)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지 시장 통화(예를 들어 달러화) 기준의 가격 설정 행위를 따르게 됨
- 이 경우 제품 가격 변경에 있어 환율의 변화를 수출 상대국 통화 표시 가격으로 100%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PT율 (환율 전가율, Pass Through) >

- 환율 변동 중 수출 상대국 통화 가격으로 전가하는 정도를 나타냄
- $PT율 = \frac{\text{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 변화율}}{\text{원화 가치 절상률}}$
- 수출 기업이 환율 변동을 현지 판매 가격에 모두 반영할 경우 PT율은 100%,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을 경우 0%가 됨

- 히스테리시스의 존재 : 원화 가치가 하락한 시기인 1996~1998년과 2001년의 환율 전가율(PT, Pass Through)은 100% 내외인 반면, 원화 가치 상승기인 1999~2000년과 2002년 이후의 경우 전가율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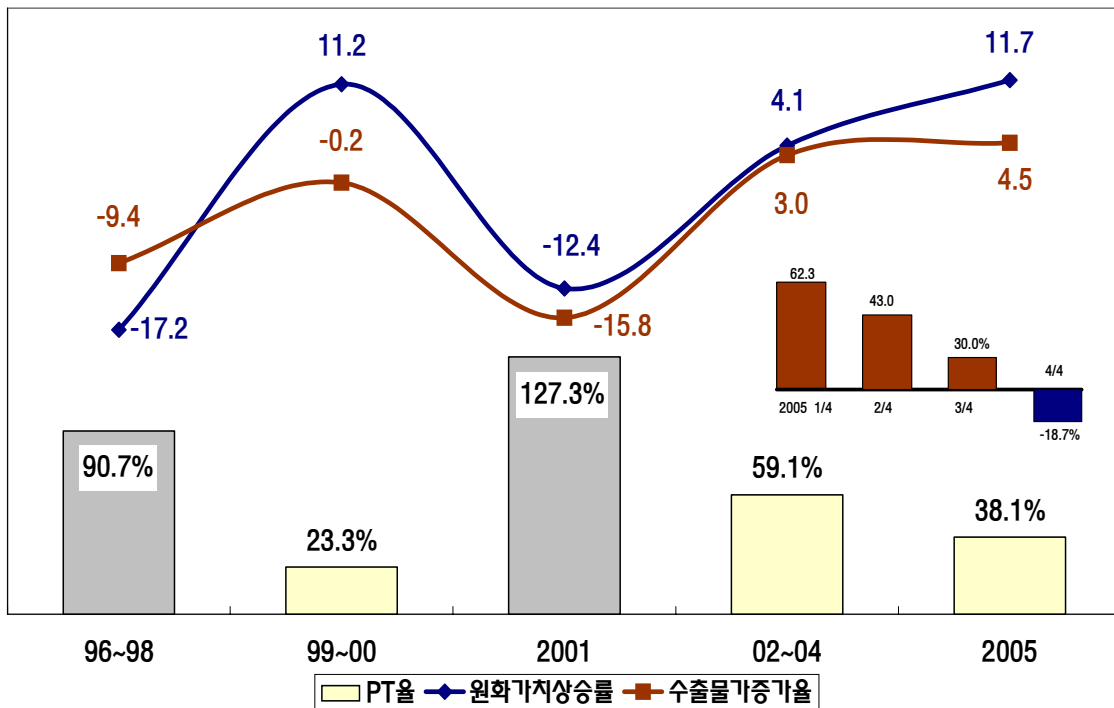
· 이러한 환율 변동의 수출 가격에 대한 전가 행위에 있어서, 원화가 절상될

경우가 절하될 경우보다 수출 가격 변화가 작다는 것은 여전히 국내 수출이 가격 경쟁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냄

< Hysteresis (히스테리시스, 이력효과) >

- 자국 통화의 절하시에 현지 수출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이 쉬우나, 일단 현지 수출 가격을 인하하면 자국 통화 가치가 다시 절상되어 환율이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더라도 수출 가격이 인상되지 않음
- Hysteresis는 본래 물리학에서 외부적 환경 변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현상이, 그 원인이 소멸된 후에도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함
- 이력 효과의 원인 : 기업의 경영 목표에서 시장점유율 유지 비중이 큰 경우, 영업망·광고비와 같은 매몰 비용이 높은 경우 등

< 수출 제품의 환율 전가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주 : 1) 원화 가치 상승률 및 수출물가지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2) 위 그래프에서 기간중 PT율 수치는 기간중 각 연도 PT율의 평균이므로, 그래프상의 원화 가치 상승률과 수출물가지수 증가율을 이용한 비율과는 차이가 존재함
 3) 96~98년 및 2001년은 환율 상승기(원화 가치 절상 시기)이며, 98~2000년, 2002~05년은 환율 하락기(원화 가치 절하 시기)임
 4) PT율은 이론상 0~100%를 넘을 수 없으나, 원자재가 급등, 수요 급증 등 급격한 제품 가격변동 효과나 환율과 가격 변동의 시차효과가 혼재될 경우 0~100% 범위를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음.

(2) 국내 수출 산업 구조상의 문제

○ 국내적으로도 수출 산업의 수입 유발 효과가 더 커지고, 고부가가치화가 미흡한 것도 수출 채산성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함

○ (수입유발적 수출 구조) 국내 수출의 수입 유발 효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수출을 할수록 수입이 더 확대되는 경제 구조가 고착화됨

- 수출의 수입유발계수는 1995년 0.302에서 2000년에 0.367로 크게 높아졌으며, 수출의 수입유발 의존도도 같은 기간 26.9%에서 36.3%로 급증함

< 수입유발계수 >
 - 수출의 수입유발계수 0.367은 수출이 1단위 증가하는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수입의 크기가 0.367단위를 의미함
 < 수입유발의존도 >
 - 수입유발의존도는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된 총액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저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 저가 제품의 물량 위주 수출 행태가 지속되어 국내 수출품의 부가가치 창출 정도가 낮은 수준에 머무름

- 국내 수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지수(수출단가지수/수출물가지수×100)는 1999년 107.2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현재 83.0을 기록함

< 고부가가치화지수 >
 - 전체 수출에서 수출 단가가 높은 품목의 수출 물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내주는 지수
 - 수출단가지수는 매년 가중치가 변하기 때문에 품목 구성 및 품질 수준 변화까지 고려할 수 있으며, 수출단가가 높은 품목의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경우 전체 수출 단가가 상승하고,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의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경우 수출 단가가 하락
 - 수출물가지수는 5년 동안 수출 품목별 가중치가 변하지 않아 동일 품목의 단순 가격 변화만이 반영됨

< 고부가가치화지수 지수 추이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고부가가치화지수	107.2	100.0	83.9	85.6	86.1	84.0	83.0
수출단가지수	99.6	100.0	86.9	83.1	85.1	91.5	93.0
수출물가지수	92.9	100.0	103.5	97.1	98.9	108.9	112.0

자료 : 한국은행.

4. 수출 산업 위기의 문제점

- 올해에도 글로벌 경쟁 심화, 고유가 지속, 환율 불안 등의 대외 여건 악화가 예상되어 경제 전체적인 실익이 감소하고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의 내수 파급 효과 차단 심화 : 경제 전체로는 실질 구매력이 축소되고 기업의 경우 채산성 악화에 따르는 투자 여력 위축으로 내수 부문 회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 외형상 성과도 소멸될 우려 상존 :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외형상으로도 큰 폭의 수출 확대도 기대하기 어려움
- 내외수 동반 침체도 가능 : 특히 내수 부문이 자체적인 복원력이 상실된 점을 감안할 때, 수출 증가세가 예상외로 급격히 둔화될 경우 내수와 외수의 동반 침체에 따르는 전체 경기 급락을 배제할 수 없음

5. 정부의 정책 과제

(1) 단기 대응 방안

① 수출 둔화에 대비한 내수 회복력 제고

- 소비 회복의 가속 : 본격적인 소비 회복 단계에 진입할 때까지는 증세 정책 유보, 물가 안정 등 소극적 의미의 소비 진작책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적극적인 국내 투자 활성화 : 공장 설립시에 부과되는 환경분담금과 같은 준조세로부터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준조세 제도의 축소 및 정비 등의 적극적인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② 부정적 대외 여건 변화의 파급 영향 완화

- 외환 시장 안정 : 국내 수출 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환율 급변동에 대비한 정부의 외환 시장 관리 능력 확충, 기업들의 무역 결제 통화 다변화 유도 정책 등이 필요함
- 민간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배양을 촉진 :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위험에 대한 노출이 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정부의 무료 환위험 관리 컨설팅과 같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방안이 요구됨

(2) 중장기 정책 과제

① 내수 중심의 경제 시스템 구축

- 부품·소재 산업 육성 시급 : 부품·소재 부문의 경우 출자 총액 제한 제도 예외 산업을 보다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 과거 비교역재로 인식되던 서비스 산업의 세계 무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 서비스 산업의 취약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② 수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이 빠르게 세계 시장을 잠식하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위주의 수출 전략에서 탈피하여 기술 및 품질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와 제도적 지원 노력이 절실함

③ 省 에너지 산업 중심의 수출 산업 재편

-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중화학 제품 위주의 수출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고,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 ET(에너지·환경) 등의 산업 육성이 필요함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 급감

○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4% 증가하였으나, 수입증가율이 27.3%에 달하여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동월의 20억 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4억 달러에 그침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 흑자폭은 5억 달러에 불과

-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 (15.7%), 자동차 (22.0%) 부문이 호조를 나타냈으나, 철강 (-4.3%), 컴퓨터 (-3.1%) 부문이 부진한 모습을 기록함
- 지역별로는 중국 (31.6%), 일본 (27.4%) 등이 호조를 나타냈으나, 對美 수출도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15.2% 증가함
- 그러나 원유 등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동월의 41.7억 달러보다 53.4% 증가한 64.0억 달러를 기록함

일본, 중국 지역의 수출 호조는 지속될 전망

- 對中 및 對日 수출은 양국가의 경기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호조가 예상되나, 對美 수출은 그동안의 부진에 따르는 기술적 반등 효과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연간	1/4	2/4	3/4	4/4	12월	1월	2월	
경기	경제성장률	4.6	4.0	2.7(0.4)	3.3(1.2)	4.5(1.9)	5.2(1.7)	-	-	-	
	수요	소비재판매	-0.8	3.9	1.2	3.4	4.4	6.8	9.6	9.4	-
		설비투자추계	1.4	3.2	3.9	1.4	1.1	7.0	12.6	0.2	-
		건설수주	-3.9	9.5	22.3	38.5	15.8	-17.9	-17.0	10.9	-
		수출	31.0	120	12.7	9.0	15.4	11.4	10.5	3.8	17.4
	공급	산업생산	10.2	6.3	3.5	3.5	7.1	10.3	11.3	6.4	-
		취업자수(만명)	2,256	2,286	2,225	2,313	2,303	2,303	2,270	2,247	-
		실업률(%)	3.7	3.7	4.2	3.7	3.6	3.5	3.5	3.7	-
수입		25.5	16.4	14.8	15.2	21.1	14.6	16.4	17.3	27.3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282	166	59	26	27	54	5	1	-	
	무역수지(억\$)	294	232	62	60	49	61	14	5	5	
물가	소비자물가	3.6	3.2	3.2	3.0	2.3	2.5	2.6	2.8	2.3	
	생활물가	4.9	4.1	4.7	4.5	3.4	3.4	3.7	3.8	3.3	

주 : 경제성장률 ()안은 전기대비 계절조정 증가율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통계 지표임.

□ 금융 동향 : 주식, 채권, 원화의 트리플 약세

○ (해외 금융시장) 일본의 금리인상이 가장 더딜 것으로 예상되며 엔화 약세

미국, 유로, 일본의 정책금리가 모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금리 상승세

- 금리: 2월 미국 ISM 비제조업지수의 예상치 상회(전월 56.8→60.1, 예상 58.0) 및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등으로 대폭 상승 (4.57%→4.73%)

- 환율: 고이즈미 총리의 금리인상 자제 발언으로 日정책 금리인상이 가장 더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엔화가 대폭 약세 (\$/€ : 1.1876→1.1925, ¥/\$: 116.90→117.86)

○ (국내 금융시장) 국제 유동성 축소 우려로 주가 급락, 금리 대폭 상승

미국, 유로, 일본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국제 유동성 축소 우려 확대

- 주가: 기업 체감경기 회복 등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및 국제 유동성 축소 우려에 따른 해외 증시 동반 부진 여파로 대폭 하락 (전주 말 1,365.8→1,314.1)

- 금리: 1월 산업생산 호조 및 기업체감 경기 회복세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유로 등의 정책금리 인상 전망으로 대폭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4.83%→5.01%)

- 환율: 수출 네고물량 출회 등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 외국인 주식순매도 및 배당금 본국 송환 가능성 등으로 대폭 상승 (전주 말 966.4→982.1)

○ (전망) 주식과 채권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 반등, 금리 반락

< 주요 금융 지표 >

	2004	2005				2006		
		1/4	2/4	3/4	4/4	2.24	3.8	
국내	거래소 주가	895.9	965.7	1,008.2	1,221.0	1,379.4	1,365.8	1,314.1
	국고채3년(%)	3.28	3.91	4.02	4.60	5.08	4.83	5.01
	원/달러	1,035.1	1,015.5	1,025.4	1,041.1	1,011.6	966.4	982.1
해외	DOW	10,783	10,504	10,275	10,569	10,718	11,062	11,006
	Nikkei	11,489	11,669	11,584	13,574	16,111	16,102	15,627
	미국채10년(%)	4.22	4.48	3.91	4.32	4.39	4.57	4.73
	일국채10년(%)	1.44	1.33	1.17	1.48	1.48	1.60	1.61
	달러/유로	1.3556	1.2964	1.2108	1.2026	1.1849	1.1876	1.1925
	엔/달러	102.56	107.15	110.92	113.51	117.75	116.90	117.86
	두바이(\$/배럴)	33.11	45.91	52.09	56.32	53.19	57.26	56.97